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olutions

---

저자 (Authors)	김창균, 임계령 Kim Chang-Kuhn, Rim Kye-Ryung
출처 (Source)	<a href="#">법학연구 38</a> , 2010.5, 173-198(26 pages) <a href="#">Law Review 38</a> , 2010.5, 173-198(26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한국법학회</a> Korean Law Association
URL	<a href="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55790">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1455790</a>
APA Style	김창균, 임계령 (2010).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173-198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20/04/25 15: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olutions

김 창 군\*\* · 임 계 령\*\*\*

Kim, Chang-Kuhn · Rim, Kye-Ryung

### 목 차

- I. 머리말
- II. 학교폭력의 이론적 배경
- III. 학교폭력의 실태
- IV.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 V. 맺음말

### 국문요약

최근 학교 안팎에서 자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은 점차 그 위험수가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각종 통계자료에 의하면, 학교폭력은 발생건수 측면에서 2000년도를 기점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그 유형은 오히려 신체적 폭력에서 금품갈취, 집단 따돌림, 괴롭힘 등 心理的 暴力으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연령도 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으로 낮아지고 있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集團化·組織化·凶暴化’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학교폭력조직이 단위학교에서 지역적·전국적으로 연계되어 있고, 성인폭력조직으로 이어지는 경향마저 있다. 학교폭력이 학생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부작용 현상은 매우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을 당하는 피해학생뿐만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가해학생도 학교생활에서 정서적 부작용이나 학습 부작용 현상을 보임은 물론이고 成人期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학교폭력은 학생들의 폭력에 대한 歪曲된 意識과 성장과정에서 인내하고 대화하는 훈련 부족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접수일자 : 2010. 4. 9.

수정일자 : 2010. 5. 6.

게재확정 : 2010. 5. 7.

\* 이 논문은 2009년도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법학박사,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제주대학교 법학박사수료

본논문은 학교폭력의 근본적인 발생원인이 무엇인지를 조감하고, 이를 토대로 실효성있는 대처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학교폭력의 대책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과 지역사회의 연계선상에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에 대한 보다 체계적이고 연속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현재 시행중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실질적으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손질되어야 한다.

주제어 : 학교폭력, 청소년범죄, 집단따돌림, 교육프로그램

## I. 머리말

최근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불거지면서 국민적 관심과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종전에는 일부 학생들의 일시적인 일탈행동 정도로 치부되어 왔지만, 그 양상이 갈수록 ‘홍포화·교묘화·광역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연령화·집단화·광역화’되고 있는 추세를마저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이 과거에는 주로 물리적 폭력을 수반하는 위압적 태도, 폭행 등을 통하여 피해학생들에게 금품을 갈취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학교폭력이 물리적 폭력을 넘어 다수의 학생이 한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집단적·정신적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 청소년폭력예방재단이 학교폭력의 유형에 대해 실시한 실태조사를 보면, 신체폭행(27%), 따돌림(18.8%), 금품갈취(16.2%), 괴롭힘(15.9%), 언어폭력(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은 비단 어제 오늘에 갑자기 불거진 현상은 아니지만 갈수록 그 도를 넘어서면서, 홍포화·조직화되는 추세를 보여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감안한다면 더 이상 학교폭력이 교육계나 학부모만의 책임으로 전가할 수는 없으며,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사회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처를 위하여 학교담당경찰제, 학

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학교폭력 위험지역의 등급구분과 특별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檢察에서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을, 민간에서도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등 여러 단체를 만들어 학교폭력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대처해 왔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 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2004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정부, 청소년 관련단체, 관련분야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대책과 방안을 제시하였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한 후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놓고 각계의 우려를 불러 일으키며, 적절한 대책의 수립이 촉구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학교폭력을 둘러싼 그동안의 연구동향과 학교폭력실태를 살펴보고, 그 동안 시행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대처방안들의 내용과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II. 학교폭력의 이론적 배경

### 1. 학교폭력의 개념

‘학교폭력’은 두 가지 용어로 구성되어 있다. 즉 ‘학교’와 ‘폭력’이라는 용어의 결합이다. 여기서 ‘학교’의 의미내용은 학교 주변을 중심으로 일정한 거리 이내에 위치한 지리적·공간적 장소를 지칭하는 것이다.<sup>1)</sup> 물론 일정한 거리가 어느 정도의 近接性을 의미하느냐를 놓고 이론의 여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반면에 ‘폭력’의 의미내용은 다른 사람에게 상해나 피해를 입히기 위해 사용되는 物理力을 지칭하지만,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1) 교육기관에서는 ‘학교주변폭력’이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공간을 포괄하는 ‘학원폭력’의 경우 오해의 소지로 인해 학원 쪽에서 꺼려하고 있다(강지원, 1999). 현재 교육기관과 검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학교폭력예방대책 역시 학교주변 불량배의 단속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학교주변폭력의 개념에 기반 한다고 볼 수 있다.

위한 힘과 권력의 부당한 사용도 폭력의 의미내용에 포섭될 수 있다. 이처럼 폭력의 外延은 단순한 물리력의 행사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해 보다 광범위한 유형의 피해로 확대될 수 있다.<sup>2)</sup>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의 개념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의미하지만, 연구자에 따라 학교폭력의 발생장소, 가해와 피해의 대상, 학교폭력의 정의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상이하다. 학교폭력을 둘러싼 시각의 차이는 폭력의 발생비율, 피해와 가해의 원인 등과 같은 연구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나게 하는 중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sup>3)</sup>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학교폭력 개념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폭력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면 학교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학교폭력이 청소년 폭력이라는 용어와 혼용되어지기도 한다. 한편 학교폭력의 범위를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나 학교주변과 등·하교 길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한정시키기도 한다.<sup>4)</sup> 둘째, 학교폭력의 주체가 되는 가해자와 피해자이다. 우리나라보다 학교폭력 문제가 더욱 심각한 미국의 경우에는 학생들 사이의 폭력뿐만 아니라 교직원들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sup>5)</sup>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빈도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학교폭력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이를 포함시키지 않지만, 최근에 들어서면서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을 학교폭력의 유형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셋째, 폭력의 개념 정의를 놓고 명확한 합의가 없기 때문에 어떠한 행위를 폭력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타인 또는 타인의 재산에 해를 입히기 위한 물리적인 힘의 행사”<sup>6)</sup>라고 정의되어지지만, 학교폭력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상대에게

2)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1, 7면.

3)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2002, 1-3면.

4)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1997: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1), pp. 55-68.

5)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IN Schools, 33(1), 1996, pp. 28-37.

6) Archer, J. & Browne, K.,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pp. 10-11.

해를 끼치려는 의도를 가진 어떠한 행동도 폭력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정의도 특정행위, 예컨대 따돌림이나 욕설과 같은 심리적·언어적인 폭력행위를 폭력으로 분류할 것인가를 놓고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하고 있다.

## 2. 학교폭력의 특성

일반적으로 靑少年期는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이 요구되는 불안의 시기이며, 급격한 성장은 신체적 변화와 성인기로의 생활 확대에 따른 적응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이 시기는 극심한 감정변화로 자신의 의지와 사고를 통제하기가 어려운 시기이기도 하다. 이 때를 잘 극복하면 성장에 도움이 되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좌절의 악순환을 가져오고 결국 문제해결을 반사회적 폭력행동에 의존하기도 한다. 학교폭력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청소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청소년 폭력의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그렇다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피해학생 및 학생폭력의 주요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 (1)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의 특성

학교폭력의 가해학생은 공격적인 성향과 충동조절이 잘 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또한 권력과 지배에 대한 욕구가 강하여 남을 지배하고 굴복시키는 것을 즐긴다. 폭력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정하고 원인의 제공은 피해학생에게 있다고 강변하며, 주변 환경에 대해 다소 적대감을 품고 있는 경우가 많다.

Lock wood에 따르면, 靑少年期에 발생하는 폭력행위의 경우 가해학생들이 폭력행동을 하는 데는 크게 4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적대적 관계에 있는 학생들에 대한 징벌이다. 둘째, 상대학생으로부터 굴복을 얻어내기 위함이다. 셋째, 자신 또는 다른 학생을 위한 방어이다. 넷째, 자신의 체면, 자존감의 수호,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대부분 다른 비행문제를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非行下位集團에 소속되어 동료들과 함께 폭력행위에 가담하는 경우가 많다.<sup>7)</sup>

## (2)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특성

Olweus는 피해자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소극적 피해자와 도발적 피해자가 그것이다. 소극적 피해자는 일반적으로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고 있으며,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공격을 도발하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며, 누구든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심과 학교라는 환경 자체를 신뢰하지 못하기도 한다. 특히, 교내 학생들에게 폭력을 당한 이후에 분노와 적개심을 보이며, 부모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교사들로부터 과잉보호를 받기도 한다. 반면에 도발적 피해자는 불안한 심리상태를 갖는다는 점에서는 소극적 피해자와 유사하지만, 가해자와 비슷한 수준의 공격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격받았을 때 반격하려는 성향이 있다. 또한 對人關係를 기피하거나 가해집단에 가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 (3) 청소년 학교폭력의 일반적 특성

청소년 학교폭력은 가해자나 피해자 또는 발생장소 등에 있어 학교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폭력행위를 지칭하는 용어이며, 그 주체나 대상이 모두 청소년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최근 들어 청소년 학교폭력의 양상에서 발견되는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up>8)</sup> 첫째, 청소년 학교폭력이 단순한 탈선의 차원을 넘어 심각한 범죄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둘째, 급격한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된 가치관의 혼란으로 청소년은 자신의 폭력 행위에 대해 罪意識이나 責任感을 크게 느끼지 못한다. 셋째, 폭력행위가 비행청소년에 의해서만 자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서도 쉽게 발견될 수 있는 일반화된 非行類型이 되고 있다. 넷째, 청소년 학교폭력이 ‘흉포화·조직화·집단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섯째, 청소년 학교폭력은 점차 그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 여섯째, 여학생들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로서 대거 등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인 폭력과 금품갈취

---

7) 도기봉,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10면.

8) 박상도, 전개논문, 9면.

이외에도 집단적으로 따돌림과 놀림, 시험지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숙제나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새로운 형태의 心理暴力이 출현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일회성 단순폭력보다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虐待的 暴力이 문제되고 있다.

### 3. 학교폭력의 유형

학교폭력의 경우 그 유형을 어떻게 볼 것인지를 놓고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상당한 공통성을 추출할 수 있다. 청소년폭력 예방재단에서는 신체적 폭력,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괴롭힘, 집단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의 대표적인 가해유형이라고 발표했다.<sup>9)</sup> 첫째, 신체적 폭력은 폭력의 대상이 된 학생 1인 또는 1인 이상의 상대로 하여금 물리적 가해를 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기, 목조르기, 꼬집기 및 물품을 이용한 폭력, 예컨대 칼, 형광등, 쇠파이프, 마포자루, 책걸상, 체인 등을 이용한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둘째, 금품갈취는 학교폭력의 흔한 형태중 하나로, 보통 구타와 동반되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범행이 한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그 액수가 커지는 경우가 많다. 금품갈취는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얻거나 재산상의 불법이익을 취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이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금품갈취의 경우 매우 심각한 범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가해학생들의 경우 그저 장난삼아 혹은 별 생각 없이 했다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셋째, 욕설 및 모욕은 큰 모멸감을 느끼고, 개인에 따라서는 신체적인 폭력보다 언어적인 폭력을 더 두려워하기도 한다. 욕설이나 인격을 무시하는 별명 따위로 불림으로써 피해학생은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기도 하고, 심지어 대인기피증에 시달릴 수도 있다. 넷째, 괴롭힘은 말로써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로 욕설, 놀리기, 단점 말하기 등으로 상대방에게 심리적 억압감을 갖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집단따돌림은 한 집단의 소속원 중 자기보다 약한 상

9) 청소년예방재단,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123면.



대를 대상으로 개인 또는 집단이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지속적으로 반복함으로써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sup>10)</sup> 집단따돌림은 최근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이러한 사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 4. 학교폭력의 발생원인

학교폭력은 한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원인들은 학교 내의 요인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청소년 폭력이 학교폭력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은 너무나 방대하다. 일반적으로 非行이나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은 한 가지 문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여러 문제행동들을 동시에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청소년비행 유발 요인들이 학교폭력에도 관련되어질 것이라고 가정해볼 수 있다.<sup>11)</sup> 따라서 기존의 청소년비행과 학교폭력에 관한 선행연구에서 지시한 여러 입장을 종합하여 보면, 학교폭력은 개인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및 지역사회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특성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 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 (1) 개인관련 요인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인 위험요인으로 우선 생물학적 원인이 있다.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은 전두엽 실행기능에 문제를 가지고 있어 공격적이고 부절제한 언어적·신체적 행동을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과 유사한 비행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 역시 실행과 낮은 주의력을 유발하여 결국 폭력적인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sup>12)</sup> 학교폭력행동을 하는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개인적 특성 중 가장

10) 광금주,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고찰”, 「청소년보호 2001-27」, 청소년위원회, 2002, 36면.

11) Donovan, J., & Jessor, R., Structure of problem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1985, pp. 890-904.

12)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53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충동성과 공격성이다. 충동적이고 공격성이 높은 사람은 사회질서나 규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은 스스로 분노를 조절하거나 화를 참는 능력이 부족하고 자신의 처한 상황에 대한 해석과 인식에 있어서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간주된다.<sup>13)</sup>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위험요인으로 개인의 장애, 특히 품행장애, 반항성 장애, 주의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등도 폭력이나 비행과 관련되어질 수 있다.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경우, 그들은 학교폭력의 가해자 및 피해자가 될 위험성이 높다. 그 이유는 사회적으로 잘 기능하지 못하고 폭력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은 학교폭력의 표적이 될 수 있다. 반면에 과거의 생활경험이나 생활양식, 특성, 그들 자신이 갖고 있는 행동장애를 공격적인 방법으로 표출하여 학교폭력의 가해 청소년이 되기도 한다.

## (2) 가정에서의 요인

가정은 개인의 성격과 행동유형을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많은 연구는 부적절한 가정환경이 학교폭력을 유발할 수 있는 중요한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가정은 부모와 자녀를 구성원으로 하여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血緣共同體이다. 따라서 가정은 人格形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단위로서 구성원 상호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행동지침을 교육하고 정서를 안정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청소년의 인격형성은 가정으로부터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갈등이나 離別로 인한 缺損家庭,<sup>14)</sup> 가족구성원간의 갈등, 가정의 경제적인 빈곤, 부모의 범죄성향 등은 서로 상호작용하여 청소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13)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1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14) 결손가정이라는 말은 부모의 부존재가 곧 그 자녀의 결손으로 이어지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말하자면 중립성이 없는 개념이다. 같은 내용의 말로 소년·소년가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결손가정과 같은 부정적 이미지는 없다. 오히려 사회·국가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매우 따뜻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결손가정이라는 말 대신 편부가정, 편모가정 또는 부모가 없는 가정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한다.

### (3) 학교에서의 요인

우리 학생들은 진학과 학업문제로 가장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는 학생들이 상급학교에 진학하는데 우선권을 두고 있는 실정이므로, 청소년들이 자신의 적성이나 개인적인 취향에 맞춰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하는 장소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등 왜곡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sup>15)</sup> 또한 학교교육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역기능적 요소들도 학교폭력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로는 과밀한 학급 또는 학생 수, 폭력회피 능력의 제한, 분노, 거부, 불만 등을 야기시킬 수 있는 행동의 제약과 순응의 요구, 폭력행위를 유발하기 쉬운 건물구조 등을 들 수 있다. 게다가 교사의 무관심, 학교의 미온적인 대응,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무관심, 통솔력과 지도력의 부재 등도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up>16)</sup>

### (4) 지역사회에서의 요인

도시화·산업화는 청소년 폭력의 양적 증가뿐만 아니라 질적 변화도 야기하고 있다. 이것은 지역사회의 상대적 빈곤과 계층 차에서 오는 부모권위의 약화, 빈곤, 교육에서의 소외, 의료 혜택 부족, 직업 및 생활수준의 심한 격차에서 오는 심리적인 열등감, 다른 계층으로의 전환 시도의 실패에서 오는 좌절과 포기 등의 문제를 파생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학교폭력을 유발하는 지역사회 요인으로는 먼저 학교 주변에서 성행하고 있는 유해환경을 들 수 있는데, 예컨대 불량 주택지, 빈민가, 오락실, 유흥업소, 노래방, 게임방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퇴폐유해환경은 청소년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유흥비에 대한 욕구를 만들어 냄으로써, 다른 청소년들에 대한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금품을 갈취하는 행동을 선택하도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성인들이 청소년비행을 방관·묵인하

---

15)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48면.

16)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4면.

는 사회풍토, 즉 성인들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무관심을 갖고 있는 현상도 학교폭력 발행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Ⅲ. 학교폭력의 실태

다른 범죄 통계와 달리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연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범죄백서 등의 선행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고자 한다.

#### 1. 학교폭력 가해 이유

〈표 1〉 학교폭력 가해 이유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이유 없음	1,218	26.7
장난	1,877	41.2
오해와 갈등	838	18.4
친구들이 시켜서	148	3.2
보복	183	4.0
기타	292	6.4
합 계	4,556	100.0

주 : 무응답 23명.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위의 〈표 1〉은 “학생들이 학교폭력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가해 이유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장난이 41.2%(1,877명)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이유 없음이 26.7%(1,218명), 오해와 갈등이 18.4%(838명), 보복이 4.0%(183명), 친구들이 시켜서가 3.2%(148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 6.4%(292명)로 나타났다.

## 2. 학교폭력 피해 이유

〈표 2〉는 학생들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 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학생들이 생각하는 학교폭력 피해 이유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학생 얹잡아봐서가 38.2%(1,741명)로 가장 높았다. 그 다음으로 이유 없음이 20.6%(938명), 오해와 갈등이 12.65%(576명), 피해학생 성격 소심이 10.2%(465명), 그리고 피해학생 잘난 체가 10.2%(463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는 8.2%(376명)로 나타났다.

〈표 2〉 학교폭력 피해 이유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이유 없음	938	20.6%
피해학생 얹잡아봐서	1,741	38.2%
피해학생 성격 소심	465	10.2%
피해학생 잘난 체	463	10.2%
오해와 갈등	576	12.6%
기타	376	8.2%
합 계	4,559	100.0%

주 : 무응답 20명.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학생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 3. 학교폭력 발생 시간

〈표 3〉은 학교폭력의 일반적 실태 중 학교폭력의 발생시간에 관한 것이다. “학교폭력은 언제 많이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일반 학생들의 응답 결과는 쉬는 시간이 33.2%(1,510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 방과 후가 29.2%(1,330명), 등·하교시간이 12.9%(585명), 점심시간이 12.3%(561명), 그리고 수업시간이 1.2%(56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폭력은 11.2%(508명)로 나타났다.

〈표 3〉 학교폭력의 발생 시간

항 목	빈도(명)	백분율(%)
쉬는 시간	1,510	33.2
점심시간	561	12.3
등·하교시간	585	12.9
수업시간	56	1.2
방과 후	1,330	29.2
기타	508	11.2
합 계	4,550	100.0

주 : 무응답 29명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 4. 학교폭력 발생 장소

〈표 4〉 학교폭력 발생 장소

항 목	빈도(명)	백분율(%)
교실	1,492	32.8
복도	231	5.1
화장실	378	8.3
공원	154	3.4
등·하교길	378	8.3
운동장·사람이 없는 곳	1,422	31.3
기타	487	10.7
합 계	4,542	100.0

주 : 무응답 37명.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표 4〉는 “학교폭력이 어디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학교폭력의 일반적 실태 중 학교폭력의 발생 장소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교실이 32%(1,492명), 운동장·사람이 없는 곳이 31.3%

(1,422명)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화장실과 등·하교길이 8.3%(378명), 복도가 5.1%(231명), 그리고 공원이 3.4%(154명)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는 10.7%(487명)로 나타났다.

## 5. 학교폭력 피해 유형

〈표 5〉 학교폭력 피해 유형

항 목	응답		사례백분율 (%)
	사례수(개)	백분율(%)	
신체폭행	300	24.6	45.1
금품갈취	199	16.3	29.9
협박 및 위협	113	9.3	17.0
욕설 및 모욕	262	21.5	39.0
괴롭힘	88	7.2	13.2
따돌림	105	8.6	15.8
인터넷 욕이나 협박	44	3.6	6.6
핸드폰 문자협박 및 동영상촬영피해	31	2.5	4.7
신체적 및 성적 접촉피해	35	2.9	5.3
기타	43	3.5	6.5
합계	1,220	100.0	183.5

주 : 무응답 40명, 비행당 3,874.

자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학교폭력유형은 대체적으로 신체폭행, 금품갈취, 욕설 및 모욕, 협박 및 위협, 따돌림, 괴롭힘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표 5〉는 학교수준별 구분 없이 학교폭력 피해실태 중 학교폭력 피해유형을 중복응답 분석한 것이다.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1회 이상 있다고 응답한 학생 705명 중 665명이 1,220개의 중복응답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볼 때 학교폭력 피해 발생 시 청소년 1인당 약 1.8개의 피해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분석결과 신체폭행의 24.6%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그 다음으로, 욕설 및 모욕 21.5%, 금품갈취 16.3%, 협박 및 위협 9.3%, 따돌림 8.6%, 인터넷 욕이나 협박 6.6%, 신체적 및 성적 접촉 피해 5.3% 그리고

핸드폰 문자협박 및 동영상피해 4.7%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기타는 6.5%의 분포를 보였다. 분석결과 학교폭력 구분 없이 전반적으로 욕설 및 모욕에 비하여 신체폭행을 당하는 학생 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6. 학생범죄자의 유형

〈표 6〉 학생범죄자의 유형별 현황 (1997~2006년)

유형 년도	계		폭력범		절도범		강력범		기타	
	인원	인구 비	인원	인구 비	인원	인구 비	인원	인구 비	인원	인구 비
1997	104,248 (100)	156.1	39,556 (37.9)	59.2	20,438 (19.6)	30.6	1,835 (1.8)	2.7	42,419 (40.7)	63.5
1998	102,912 (100)	153.9	37,077 (36.0)	55.4	23,571 (22.9)	35.3	2,151 (2.1)	3.2	40,113 (39.0)	60.0
1999	101,330 (100)	153.1	40,693 (40.1)	61.5	18,820 (18.6)	28.4	1,632 (1.6)	2.5	40,185 (39.7)	60.7
2000	109,058 (100)	166.9	44,015 (40.4)	67.3	19,919 (18.3)	30.4	1,535 (1.4)	2.3	43,589 (39.9)	66.7
2001	100,696 (100)	157.4	40,367 (40.0)	63.1	14,911 (14.8)	23.3	1,161 (1.1)	1.8	44,191 (43.8)	69.1
2002	96,163 (100)	150.4	33,363 (34.8)	52.3	17,269 (18.0)	27.0	1,520 (1.6)	2.4	43,911 (45.7)	68.7
2003	89,544 (100)	140.4	29,969 (33.5)	47.0	16,632 (18.6)	26.1	1,744 (1.9)	2.7	41,199 (47.2)	64.6
2004	79,602 (100)	123.7	24,354 (30.6)	37.8	16,255 (20.4)	25.2	1,442 (1.8)	2.2	37,551 (47.2)	58.3
2005	71,408 (100)	106.0	23,011 (32.2)	34.2	17,185 (24.1)	25.5	1,332 (1.9)	2.0	29,880 (41.8)	41.8
2006	72,731 (100)	111.0	19,863 (27.3)	30.0	19,892 (27.3)	30.0	1,659 (2.3)	3.0	31,317 (43.1)	46.2

주 : 1. 범죄분석

2. 인구비는 학생인구 10,000명당 범죄지수

3. ( ) 안은 분포백분율

자료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07.



〈표 6〉은 최근 10년간 학생범죄자의 유형별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1997년과 2006년을 비교하여 보면 강력범은 1,835명에서 1,659명으로, 절도범은 20,438명에서 19,892명으로, 폭력범은 39,556명에서 19,863명으로 감소하였다. 학생범죄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절도범과 강력범, 그리고 기타범죄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 IV. 학교폭력의 대처방안

### 1. 학교폭력대책의 문제점

학교폭력이 관심을 끌고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동안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을 위해서 많은 방안들이 제시되고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대책들이 그리 큰 성과를 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학교폭력은 가해·피해학생뿐만 아니라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일정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개인·가정·학교, 지역사회, 정부의 각 방면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한 나위도 없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제시된 대처방안들이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은 주로 가해자의 관점에서 소수의 가해자를 줄이는 정책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피해자의 관점에서 폭력피해방지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다. 둘째, 정부의 대처방안은 학교폭력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단속과 처벌위주의 일시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서나 기타 유관기관들의 전시행정도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셋째, 언론기관의 무분별한 보도 자세이다, 학교폭력장면을 여과없이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어 모방범죄를 발생하게 하는 측면도 없지 않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당해 학교의 교사들이 모두 무책임한 것처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의 보도를 한다. 더욱더 큰 문제는 학교폭력이 언론에 보도되면, 유관기관에서는 진상조사와 방지대책을 발표하는 등 부산을 떨다가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야무야하는 자세이다. 넷째, 교과부를 비롯한 유관기관들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안이하지만, 교사, 가해학생 부모들이 학교폭력을 바라보는 시각도 큰 차이가 없다. 학

교폭력의 피해자는 피해가 적든 크든지 간에 평생 육체적,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고 살지만, 정작 교사나 가해학생의 부모들은 그러한 피해를 애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쯤으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있다. 게다가 교사들의 경우 학교폭력과 직접 관계되지 않으면 관심이 적은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觸法少年에 해당하는 중학생들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학교에서 폭력서클을 만들어 집단적으로 폭력을 일삼기도 한다.

## 2. 가정에서 대처방안

일반적으로 청소년의 非行·逸脫은 缺損家庭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으나, 경험적 연구에 의하면 양자 간 相關性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굳이 청소년의 일탈 원인을 가정적 요인에서 찾는다면, 부모의 적절한 감독과 대화의 결여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부모와 자녀의 대화는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방법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많은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를 통하여 자기발견과 반성을 함으로써 사회에 능동적으로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의 문제는 대화를 통하여 예방 또는 선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만연한 成績 優先主義는 자녀들을 이기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하게 만들며, 스트레스를 학교폭력으로 표출하거나 학교폭력에 쉽게 순응하게 만든다. 그러므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는 일이 시급하다.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자녀를 교양할 때 자녀들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 특히 학교폭력의 가해학생들은 대부분 부모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그렇다면 원만한 가족관계를 수립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상담교육, 의사소통교육, 공감훈련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복지지원 서비스가 있어야 한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부모, 선생님들이 참여하는 화해모임을 마련하여 당사자들이 폭력이나 갈등의 문제를 자신의 입장에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이해하려는 자세에서 풀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3. 학교환경에서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해소를 위한 학교의 역할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 교육정책과 교사의 자질을 향상해야 한다. 학교 교육정책은 현재의 성적위주 관행에서 全人教育의 장이 되어야 한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자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자질은 학생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육의 수월성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교사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학생관리 방법, 학생과의 유대감 및 배양훈련, 스트레스 관리기술 등을 연수하여 학생관리가 비폭력적이고 합리적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학교생활지도와 상담기능을 활성화해야 한다. 학교 내의 생활지도와 상담기능을 강화를 위해 상담전문교사를 채용하거나 또는 상담관련 전공 학부모의 보조 상담교사제로의 활용을 통해 여건을 개선해야한다. 학교단위별로 전문가, 사회단체, 청소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자문위원을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인 지역 특성에 적합한 학생지도대책을 모색하고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학교의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여 현재의 ‘과대학교·과밀학급’에서 ‘소규모학교·소규모학급’으로 변화시켜 교사와 학생간의 관계나 학생들의 상호관계가 더욱 친밀감을 유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4. 지역사회에서 대처방안

학교폭력의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은 정신적 측면과 물리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前者는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유지함으로써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건전하게 함양하는 것이고, 後者는 물리적 유해환경의 조성을 억제하는 것이다. 먼저 정신적 측면에서는 사회전반의 건전성 회복을 위하여 국민적 차원에서 도덕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물리적 측면의 개선방안은 학교주변의 유해시설의 설치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학교주변의 퇴폐유해환경은 학생들의 잘못된 호기심을 유발하여 탈선을 부추기고, 이와 맞물려 유흥비 마련을 위해 금품을 갈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해환경의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학교폭력이 근절되기 어렵다.

청소년들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유해환경이 성인들에 의해서 사회에 만연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동안 국가 기관이 행정력을 동원하여 유해환경을 淨化한다고 하지만 요란한 구호에 그치고 있다. 학교나 시민단체의 활동도 그 한계성으로 인해 실제적인 정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흥·숙박업소 등 학교주변 유해환경을 과감하게 정비해야 한다. 또한 학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절대정화구역을 확대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경우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놀이문화나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나 긴장을 해소할 수 있는 허용된 공간과 방법이 없다면 자연히 이들은 불량환경에서 반사회적으로 靑少年期の 葛藤을 해소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성장기의 갈등과 긴장을 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여가문화와 시설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는 학교나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에 유관기관들간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을 통한 공동대처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간 제안된 여러 방안들을 보면 형식적인 一回性으로 끝난 듯싶다.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경찰과 학교는 학내우범학생 실태, 폭력집단의 구성 및 동태, 지역 폭력집단과 연계 등의 범죄정보를 상호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학교와 경찰이 공동대처해야 한다.

## 5. 법제도적인 대처방안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이를 계기로 정부는 2004년에 ‘학교폭력대책법’과 ‘동시행령’을 제정하였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동법에서 ‘學校暴力’이란 학교내외에서 학생<sup>17)</sup> 간에 발생한 신체·정

17) 여기에서 학생이라 함은 초등학교나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을 갖고 있는 자를 말하며 대학생, 자퇴생, 퇴학생, 취학의무 유예자, 취학의무 면제자, 정원 외 학적관리 대상자 등은

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학교 내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학생 간에 발생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이는 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것일 뿐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학교폭력대책법은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일반법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령에 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을 準用한다. 또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의 결과는 화해의 효력이 없다. 이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 간에 발생한 분쟁을 사법기관에 고소·고발 또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교육공동체가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데 그 근본취지가 있기 때문이다. 동법은 학교폭력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누구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 또는 所屬學校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동규정의 입법취지는 학교폭력사건이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허다한데, 대부분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認知한 학교주체들이 사건의 당사자들을 압박하여 진실을 은폐하고 이를 묻어 버리는 경향이 강하였다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지 않을 경우, 피해학생들은 상당 기간 고통을 받고 심한 경우에는 정신적 충격으로 심각한 후유증이 발생하여 성인이 되어서도 완전히 회복되기 힘들다.

동법 시행령은 학교폭력의 行爲類型을 더욱 구체적으로 상해·폭행·감금·협박·악취·유인·추행·명예훼손·모욕, 공갈, 재물손괴 및 집단따돌림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가하거나 하게 한 행위로 규정하여 육체적 폭력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 또는 정신적 피해행위까지를 포함한 넓은 의미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관한 調整申請 및 개시절차, 분쟁조정 기구·중지 및 종료 사유, 분쟁조정 결과처리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점증하면서 정부는 학교폭력대책법의 제정과 함께 2005년에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5개년 계획을 마련하였다. 당시의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청소년보호위

---

학생에서 제외된다.

원회, 경찰청 등 관련정부부처와의 합동으로 마련된 5개년 계획은 2005년부터 학교폭력 발생건수를 매년 5%씩 감소시켜 5년 내에 25%를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5개년 계획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① 추진조직의 운영 활성화, ② 예방교육 및 지원체계의 강화, ③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선도의 강화,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을 구체적인 실천방안으로 설정하였다. 하지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시행단계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정하여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국의 법령들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손질해야 할 것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동법률의 내용을 숙지시키기 위한 교육도 병행해야 한다. 학교폭력을 궁극적으로 해결하는 주체가 학생들이기 때문이다.<sup>18)</sup>

## V. 맺음말

학교폭력은 개인의 인성, 가정, 학교, 지역사회, 정부 등 여러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나타나는 복합적인 문제이다. 이로 인해 폭력예방을 위한 대책들을 다각적인 방법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사회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수많은 대책들을 제시해 왔으며, 또한 정부의 많은 지원이 있었다. 그러나 아직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교폭력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처방에 급급하기보다는 학교폭력의 다양한 원인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논문은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방안을 크게 네 가지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및 상담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해학생이 되지 않도록 예방 차원에서 정서교육 및 스트레스 관리훈련을 통해 공격성을 강화시키지 않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미 공격성이 강화된 가해학생들의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감정적 치료를 우선하고, 도덕적 가치교육 뿐만 아니라 이

18) 전권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65면.

들이 결여된 사회적 및 대인관계 기술의 훈련을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또한 피해학생의 경우는 등·하교 시에 위험지역을 피하고 필요 이상의 용돈이나 高價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그리고 폭력을 당하면 적극적인 자세로 신고를 하는 등 事後處理를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다. 더불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시에 참여할 수 있고, 이를 중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심각한 정도의 폭력문제를 제외하고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가 참여하고 궁극적으로 화해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둘째, 학교는 가정과 지역사회의 공통적인 관심사이며, 공동생활의 영역이다.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학교는 가장 좋은 구심점이 될 수 있다. 학교는 해당 지역주민이 하나로 모이기에 가장 용이한 곳이다. 또한 방과 후 활동이 강조되는 현시점에서, 학교의 역할은 더욱 기대되고 있다. 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가정교육과의 연속선상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효과를 제대로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정부와 지역사회에서 학교폭력의 예방대책을 수립하더라도, 학생들의 생활영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교생활과 연계되어 시행되지 못한다면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그러므로 학교폭력의 대책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의 연계선상에서 수립되고 실행되어야 한다.

셋째, 학교폭력의 실태조사가 부실하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전국적인 규모의 조사는 연속적·체계적으로 실시되어 오지 못했고, 이에 따라 최근 학교폭력의 동향을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상당히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언론과 기존연구는 학교폭력을 객관적이기 보다는 오히려 편향된 시각에서 바라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필요 이상의 불안이나 두려움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

넷째, 학교폭력관련법의 적극적인 시행을 강화하여야 한다. 학교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1994년 미국에서는 “안전하고 마약이 없는 학교와 지역사회법”을, 1998년 영국에서는 “범죄 및 무질서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04년 12월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법률”을 제정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수단을 구비하였다. 동법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이를 학교나 경찰에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와 자치단체, 교육기관은 학교폭력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도록 규정하였다. 특히 각 학교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설치와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책임교사 등을 임명하도록 하였다. 정부는 가해학생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의 금지, 학급교체, 전학,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퇴학처분 등의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현실에 맞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에 대해 새로운 대안이나 대책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의 관심과 노력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자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대책이라고 하더라도 관련자들의 적극적인 實踐意志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무용지물이 된다.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일심동체가 되어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 참 고 문 헌

- 곽금주, “한국의 학교폭력 실태에 관한 선행연구 비교고찰”, 「청소년보호 2001-27」, 청소년위원회, 2002.
- 곽영길,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인식과 경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7.
- 노성호, “학교폭력의 실태와 문제점”, 「범죄방지포럼」, 제15호, 한국범죄방지재단, 2004.
- 도기봉, “학교폭력의 가해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2007.
- 문용린 외 공저,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2006.
- 박상도, “청소년 학교폭력의 원인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2001.



- 이상균,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9.
- 임영식,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5권 제3호, 2002.
- 전권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검토”,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2007.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7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2008.
- Archer, J. & Browne, K., Human Aggression: Naturalistic approaches, Routledge, 1989.
-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2(1), 1997.
- Donovan, J., & Jessor, R., Structure of problem in adolescence and young adulthood,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1985.
-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Factors associated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IN Schools, 33(1), 1986.
- Olweus, D., Bullying at school: Basic facts and effects of a school based intervention Program, Journal of Child Psychiatry, 35, 1994.

## ABSTRACT

###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olutions

Kim, Chang-Kuhn · Rim, Kye-Ryung

School violence is a complicated issue that combines various elements, such as personal characteristics, homes, schools, and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solutions for the prevention of violence must be multifaceted. As examined previously, the Korean society has established countless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and is expansively suppor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these measures and support are not solving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In order to solve the underlying causes of school violence,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causes and make a long-term approach to the problem, rather than implementing short-term and improvised solution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theoretically examined school violence, analyzed the causes of school violence, and suggested the following four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First, it is necessary to offer various professional education programs and counseling services to both the harmer and the victimized.

Second, schools are the common interest of homes, schools, and the local community and the place of group activities. When the local community considers measures to solve school violence, they can use school as the executors, Schools can accommodate gatherings of local residents.

Third, we lack substantial information on school violence. Korea has not implemented nationwide researches to understand the reality of school violence every year and lacks resources to understand the latest trends and circumstances in school violence. We must realize that exaggerating the issue can plant exceeding anxiety and fear in students and parents.

Fourth, school violence regulations must be enforced. The U.S. enacted the "Safe and Drug-free School and Community Act" in 1994 and England enacted the "Crime and Social Disorder Act" in 1998 in regards to school violence. Korea enacted the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n December 2004 to regulate school violence by law. This law obligates the victimized to report their cases to the school or the police, and the Government, related public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make their fullest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each school is expected to organize the Autonomous School Violence Solution Committee and appoint professional counselors and school violence guidance. The Government must supervise each school to take appropriate actions, such as the harmer’s written apology to the victimized, prohibition of approach or blackmailing to the victimized, change of classes, change of schools, volunteer activities in school, social services, special training or psychological therapy by experts, or dismissal from school. It is necessary to provide new alternatives and measures for school violence, but what is more important is to encourage interests and efforts of those who are directly related to this issue. In other words, what is more important than new measures in the determination to execute them. Even the best solution is useless without efforts. Thus, it is important to encourage homes, schools, and the local community to come together and make seamless efforts to prevent school violence.

\* Key words : school violence, juvenile delinquency, bullying, education program